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재앙의 날이 다가올 때 (아모스 3장 9 - 15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올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군인과 지도자들을 약하게 하므로 적군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로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는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지도자와 부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 특히 각계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1. 심판 중의 궁핍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결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12절).

심판은 사자가 양을 잡아먹듯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사자의 입에 들어가지 않은 두 다리와 귀 조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남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각가지 방법으로 재앙을 피하는 모습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어느 곳도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자의 입 속에 들어간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같이 사자가 다 삼키운 바 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두 다리와 귀 조각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2. 피할 수 없는 심판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15절).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물질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때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암 3:11)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은 상아로 장식한 사치스러운 곳이었습니니다. 이들은 겨울 궁과 여름 궁에 가서 종들을 풀어주고 그 곳에 숨어있으면 아무도 모를 터이니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옵는 날에 벨엘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13-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숨으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단에는 희생의 제물이 있는 곳이므로 제단의 뿔에 매달리면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예배는 형편없이 타락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되지 않은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단이 거짓되었고 가증한 제물을 바쳤으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을 먼저 심판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위선적이고 가증되며 더러운 예배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도적질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종교의 이름도 소용이 없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5-17).

바위가 아무리 큰들 그 아래 숨었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는 모든 일은 마치 자기 눈을 가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물질로 방어벽을 쌓고, 제단 안에 숨고, 종교적인 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땅 위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며 공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눈가림을 하면서 살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판단대로만 된다면 잔재주를 부리며 살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은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피가 소리를 치고 땅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창 4:10). 우리가 감추고 행한 악한 일들이 소리를 치고 일어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날에는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빛에 비추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종말에 비추어 오늘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이 삶입니다.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천 년을 사는 것처럼 살고, 천 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혈액을 검사하면 인간의 수명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인간의 수명은 영원한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밤에 죽을 사람처럼 순간 순간을 보람되고 뜻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준비 시작하다

안내 우편들 발송 및 집행위원 구성 완료해

오는 3월 31일에 개강하는 제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D)은 지난 주 이미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안내하는 신문광고를 각 교계 신문에 게재한 바 있고, 이와 별도로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안내 팸플릿을 등록된 교역자들에게 발송 완료하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23학기 세미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집행위원과 봉사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11년간 한국교회의 갱신을 기도하며 섬 없이 달려온 우리교회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더욱 은혜롭고 문제해결을 받을 수 있는 강의로 준비되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좋은 열매 맺도록 기도한다.

<제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집행위원 및 봉사자>

- 원장: 민순구 장로
- 교학과장: 정종오 집사
- 서기(남): 김시환 집사
- (여): 안영순 집사
- 회계: 인대진 집사
- 관리: 최광성 집사
- 식사: 권사회 전원
- 봉사자: 윤찬오 장로, 이복규 장로, 한길동 집사, 서준식 집사, 신용식 집사, 이계홍 집사, 박경준 집사, 김규태 집사, 이양철 집사, 김진철 집사, 양준영 집사, 차도훈 집사, 우상태 집사, 유관모 집사, 김수호 집사, 나금주 집사, 노인숙 집사, 박중숙 집사, 서중숙 집사, 박영영 집사, 윤용미 집사, 윤숙희 집사, 이미숙 집사, 박순복 집사, 이은자 집사, 김현정 집사, 현기옥 집사, 채경희 집사, 최충희 집사, 박미숙 집사, 정수진 집사, 송미자 집사, 나연신 집사, 박한옥 집사, 송희숙 집사, 김남옥 집사, 김우경 집사, 김명숙 권사, 박분옥 집사, 박재숙 집사, 최명순 집사, 임은희 권사, 김민숙 권사, 임인선 집사

재번역한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대한 공청회

그대로 받고 총회에 상정키로

지난 3월17일 오후 2시에 한국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위원회와 총회교육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

이준윤 목사의 사회와 총회장 최병곤 목사의 설교로 1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이어진 2부 공청회에는 전국 노회에서 참석하여 대강당을 가득채운 참석자들의 질문과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번역위원들의 전문적인 해석이 결집된 설명과 응답에 전체적으로 그대로 받

고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을 위해 수고한 위원장과 번역위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박수로 은혜롭게 끝을 맺었다.



급주의 성구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 45:7-8)

But God sent me ahead of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save your lives by a great deliverance. "So then,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He made me father to Pharaoh, lord of his entire household and ruler of all Egypt. (NIV Genesis 45:7-8)

허 숙(편집부)

찬양대 양성반은 주일 오후 1시 30분 미스바홀 (102호)에서 수업한다.

성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새 봄을 맞아 성도와 지역주민을 위해 우리 교회의 "열린 프로그램"이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성도들에게 성경말씀과 다양한 교양을 쌓게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찬 여가 시간과 복음을 만날 기회를 가져다주는 열린 프로그램은 이번에도 폭넓은 계층과 연령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커리큘럼을 준비해놓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은 크게 서울성경대학과 살롬 경로대학, 주부대학 등 3가지로 나뉜다. 특히 이번에 13학기 짝인 서울성경대학은 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과목을 주일에 개설했다. 주부대학과 살롬 경로대학도 실속 있는 '정보강의'와 은혜의 시간들을 마련해 성도들을 부르고 있다.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참가자를 자랑하는 서울성경대학은 신규약 성경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려는 성도들을 위해 지난 1997년에

개설됐다. 그동안 참가자가 연인원으로 무려 2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13학기에는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교사를 소원하는 자들을 위한 교사양성반과 각 교구에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교구일꾼 양성반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목들이 주일로 옮겨져 보다 많은 성도들이 문을 두드리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학기에 개설된 성경과목은 요한복음(월)과 디모데전후서(화), 열왕기상하서(목), 에스겔서(금) 과정 등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강사로 나서서 열띤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찬양대를 양성하기 위한 찬양대 양성반이 서울성경대학내에 처음으로 개설돼 은혜로운 찬양사역에 헌신할 일꾼들을 키워낼 계획이다. 전도이론과 실천에 대해 배우는 전도학교도 주일로 옮겨졌다. 여기에 김영한 목사의 평신도 신앙강좌반, 김재진 목사의 요리문답반이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주부대학 - 지난 2001년부터 여 성도들과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주부대학은 그동안 4학기를 운영해왔다. 이번 학기의 중요 강의는 여성의 건강관리, 상담, 문화답방,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부모의 자녀 학습지도, 인터넷, 한방, 영양관리 등이다. 다른 학기 때보다 교육과 여성건강에 관한 강의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학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은 모두 오세요

다음 주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비롯한 성경공부반과 열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찬양대 양성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찬양대 양성반은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찬양대원의 영성 훈련과 찬양대원의 자질 및 이론과 실기를 아울러 가르치게 되는데, 앞으로 찬양대를 입단하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찬양대 양성반을 통해 예비 훈련을 받아야 하고, 현재 찬양대를 섬기는 성도들 중에도 실력이 미치지 못하여 찬양대를 따라가기 힘들다거나 혹은 자질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찬양대 양성반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다시 찬양대를 봉사해도 좋을 듯 하다.

찬양대 양성반을 지도할 박정선 집사님은 30년이 넘게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재를 동시에 다루며 찬양대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찬양을 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 아무런 준비 없이 찬양대에 입단하거나 또한 양적 부흥만을 위하여 거르는 과정 없이 찬양대에 입단을 허락하여 오히려 찬양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다소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대 양성반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찬양대를 쫓아가거나 지휘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찬양대 양성반의 프로그램은 지난 번 순례자에 게재된 바와 같이 첫 시간은 찬양지도 목사이신 윤영국 목사님으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통해 찬양대원의 영적 훈련을 받게 되고 그 후 9주간 박정선 집사님의 지도 하에 매주 1시간 30분 동안 찬양의 가장 기초 훈련인 호흡과 발성, 이를 뒷받침한 이론적 지식으로 악보 보는 법, 악보를 통한 실제 찬양등을 수업 한다.

박정선 집사님은 또한 찬양대원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귀를 가져야 한다면서 주중에 2회 정도 유명한 찬양대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허 숙(편집부)
찬양대 양성반은 주일 오후 1시 30분 미스바홀 (102호)에서 수업한다.

기에도 강의가 끝난 뒤엔 영어회화교실과 꽃꽂이, 종이접기 교실 등, 반별 특별활동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숙 박사의 여성의 골다공증 관리, 주원순 사모의 가정에서의 폭력에 관한 상담,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전광영 집사가 안내하는 문화답방, 동국대 강사인 이은옥 권사의 부모 자녀 대화법, 명지대 강사인 조혜경 박사의 부모의 자녀 학습지도, 김시환 집사의 인터넷교육, 그리고 한의사인 김영주 원장의 한방과 여성건강,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나미용 집사의 영양관리 등 강사들의 면면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인 대학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시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교회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노인 대학을 설치하고 1년에 두 차례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제6학기에도 노후생활에 관한 강의와 간증, 유적답사와 체육대회, 영화관람과 레크리에이션 등 매우 활동적이고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됐다. 성경교실과 컴퓨터, 교전무용 등 특별활동도 빼놓지 않고 개설됐다. 인생의 황혼기에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롬 경로대학은 노년기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학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철(편집부)

청교도 신앙세미나 기자회견



지난 3월12일부터 15일까지 본 서울교회당에서 계속된 청교도 신앙세미나를 마치고 15일(토) 12시에 802호 비전 홀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미나에 참여하였던 최비율 목사(새서울 침례교회), 이상현 박사(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서정철 목사 등이 참석하였고 크리스찬연합신문사, 미래한국신문, 글란출판사, 연합공보, 기독교보, C.B.S 목회자신문사, 교회연합신문사, 기독교보사 등이 취재를 하였다. - 편집부 주 -

이중윤 목사: 우리 민족이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1903년에 이민을 시작한지 올해로 꼭 백년이 됩니다. 이민의 역사가 우리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 들인 지 몇 십 년도 채 안된 한국교회가 미국에 교회를 세웠다는 아름다운 역사의 사실이며, 이는 초대교회 역사상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역사상의 사실과 비견되는 일입니다. 이제 100년이 흐른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는 이 때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세미나로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인 청교도 신앙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동부지역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 KIMCHI는 세계로잔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행사로 이번 11차 대회로 그동안 세계 각국의 교계 지도자를 초청 신앙 훈련을 수행해왔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중심을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 신행일치(信行一致)일 것이며 이는 청교도의 삶 자체였습니다.

<자유질문>

안계수 목사: 2000년 7월 워싱턴 일원에서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이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하던 중 미국 이민의 역사는 기독교 이민의 역사와 같아지기 때문에 한인교회들도 세미나 준비를 명문의 목사님을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범교회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명돈의 목사: 그동안 서울교회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준비하여 3월에 개최하기로 의견을모아 지난 12일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메릴랜드 벨렌 교회에서 8.21~24까지 '복음화 대성회'로 준비 중입니다.

이중윤 목사: 미국 한인교회의 실태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박사: 숫자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인교회는 깊은 뿌리가 없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로 미국 내에 약 4000여개의 한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캘리포니아 주 LA 지역에 6-700개, 동부 지역 워싱턴 지역에 350개 교회가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인 이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중심으로 세워져있고 한인들은 자영업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 미국 내 한인 청소년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이민 1세대의 신앙의 뿌리가 이민 1.5세 -2세대 사이에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그들이 매우 방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내 한인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궁금하고 전체적인 현상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계수 목사: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막중한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내 한인 교회 전반적인 상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은 청소년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연합수련회를 개최하여 깊이 있는 신앙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교회출석률이 계속 증가하고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협의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박사: 한인 교포 2세대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대략 2가지로 파악되는데 첫째는 문화적 차이로 1세는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2세대들은 미국 문화에 깊이 몰두하여 한국적인 것은 거의 잊어버리고 부모보다 더욱 빨리 미국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민 초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1세대의 교회는 정서상(언어, 문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속화 된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 교회 내에 영어목회부를 신설하여 미국화 된 청소년들에게 맞게 영어예배를 드리고 ②1세대의 교회 내에 2세대의 교회를 분리하여 독립된 교회로 운영하여 그들의 정서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한인교회에서는 silent exodus 말없는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세대들은 많은 아쉬움을 갖지만 필연적인 결과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2세대들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1세대들보다 더욱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중윤 목사: 미국에 이민간 한국인중 기독교인들은 몇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현 박사: 미국에 도착할 때는 약 50%정도이고 이민 후에는 75%로 증가합니다. 이는 외롭고 인종차별의 서

러움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한인교회가 이민자들에게는 단 하나인 한국인들을 위한 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민 후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 25%는 이민교회가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규상 기자(목회자신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 된 이라크 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선 목사: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계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 미국내 한인교회의 방향과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안계수 목사: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는 세속화 되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 마지막 때에 사도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인권 목사: 조국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윤 목사: 앞으로 청교도 신앙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박사: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청교도 정신이 일어나고 있는 좋은 현상입니다. 청교도 신앙은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즉 몸 마음 정신 영혼 그리고 체험의 신앙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기자(기독교보): 미국에 한인교회사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년을 맞는 한인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위해 자료 정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간에 하나 되고 주류사회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며 한인 교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느낍니다.

정리: 유태서(편집부)

환절기 건강관리



이인숙 권사(1교구)

매서운 추위는 물러가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중순이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러한 환절기에는 잘 알다시피 일교차가 크다. 그로 인해 건강상에 위협이 될만한 질환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우선 흔히 말하는 감기, 즉 급성 상기도염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 우리 몸은 신기해서 40도를 넘는 열대사막의 더운 공기나 영하40도의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여도 코의 비강에서는 30-32도로 되고 후두부 기관에서는 정상체온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환절기에는 급격한 기온 및 습도의 차이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강의 생리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 점막에 손상이 오면서 바이러스 등이 침범하게 되어 코가 막히는 증상과 함께 입으로 호흡하게 되고 나아가 편도선이 부으면서 목이 아파게 된다. 더욱 진행되어 하부 기도까지 손상을 입게 되면 폐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귀가 시 반드시

따뜻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적당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약간의 증상이 의심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혈관의 변화를 들 수 있겠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 환자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른 아침에는 혈압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낮은 기온에 노출될 경우 혈관이 수축하면서 동맥경화로 좁아진 혈관벽이 더욱 좁아져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 부위가 뇌인 경우 뇌졸중으로 나타나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인 경우 협심증에 이은 심근 경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침저녁 운동 시 반드시 따뜻하게 입고 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쌀쌀한 날씨로 인해 실내생활만 하다가 좋은 날씨에 이끌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중, 노년 분들의 경우 보다 철저한 혈압 및 당뇨조절이 필요하다. 절대 먹던 약을 거르지 말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적당한 식사조절이 동반되어야 한다.

환절기에는 무엇보다도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순례자 특집(이단 바로알기①)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도 이단인가?

오정식 목사(3, 4교구담임)

요즘 한 코미디프로에서 "맛습니다, 맛고요"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개그맨이 엄청난 돈을 받고 CF를 찍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삼육두유' 광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두 번 정도는 이 음료를 마셔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음료를 만드는 삼육식품이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청량리에 가면 '시조사'라는 출판사가 있고 '위생병원'이 있다. 노원구 공릉2동에는 삼육두유와 같은 이름의 삼육대학이 있고, 학생들 가운데서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SDA삼육외국어학원이 있다. '안식교' 하면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하지만 이단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0회 총회에 제출된 총회 사이비이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그 실상을 알아보자.

1.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종말론과 안식교의 출발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의 소위 시한부종말론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발로 끝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종말론을 추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렌 지 화이트가 계시를 받아 밀러의 시한부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함으로써 생겨난 종파가 모여서 소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Seventh day Adventists)가 만들어졌다.

2. 율법적인 구원관

안식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7, 85, 127-129, 265-266쪽, 대쟁투 상, 433쪽).

3. 안식일 문제

안식교의 주장에 의하면 안식교는 '남은 자손'으로서 참교회요, 로마 카톨릭은 배도(背道) 했으며 개신교회는 성서 진리로부터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

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침묵의 표를 받으며,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식일 준수'는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7, 151-161, 238-241, 244쪽).

4. 계시론

안식교에서는 비록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며 하나의 신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엘렌 지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상이나 그녀가 쓴 책들 또한 그들의 특별계시이다.

특히 말세의 참 교회의 특징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엘렌 지 화이트야말로 그 '예언의 신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받았다는 계시가 말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라고 주장함으로 안식교는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가진 자들이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7, 204-211, 156-157쪽)

5. 영혼멸절의 문제

안식교는 여호와 증인의 주장과 같이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소위 영혼멸절설을 취한다. 즉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교리 27, 340-341쪽)

6. 결론

안식교는 율법주의적 구원론, 토요일 안식일 문제, 엘렌 지 화이트의 계시론, 영혼멸절설, 영원지옥부재설 등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대인들에게 채식위주의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캠페인을 통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육두유'를 생산하는 삼육식품이 안식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안식교 스스로가 정통교회임을 표방하고 국내외 교계유명인사들과 기독교언론기관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장로교회와 빌리 그레이엄도 이들이 정통교단임을 변호하고 주간기독저널과 들소리신문 등이 정통교회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식교는 기독교 텔레비전 사업에도 참여했다가 교계여론의 반발로 인해 좌절된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단인가, 아닌가의 문제

는 교계유명인사들과 기독교언론기관들이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아닌 행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신약시대의 주일을 무시하고 한낱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는 안식교는 분명한 이단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사탄의 거짓말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초등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6학년이 되는 어린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학교로 하니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집회실로 사용되고 있는 702호가 좀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양육할 교사들은 연초에 임명받은 교사들로 이제는 감당하기가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에게 새로 보내주시는 어린 생명을 올바르게 양육할 교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뛰놀며 말씀을 가르치고 심방하며 기도도 어린생명을 양육하기 원하는 성도는 초등부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초등부 카페: cafe.daum.net/littlepilgrim)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4일(월)장로교 신학회 제2차 학술 발표회를 소집한다.
 - 27일(목) 총회 주재 위원회에 참여한다.
 - 김태욱 집사, 이미리 집사 가정 3/26 미국으로 이사
 - 이영조 집사(11교구) 쌍용시멘트 동해공장장 임명
 - 가족: 김태욱 집사, 이미리 집사 가정 슬림형 에어컨 기준
 - 가족: 김규태 집사(4교구) 농어촌 100교회운동, 비전2020 운동 현금표지판 기준
 - 득녀: 김오른 · 이주연 성도 3/20(4교구)
 - 금주의 식사: 노송성 장로 · 이영옥 집사 가정 - 송진 감사

반갑습니다.

· 양손을 약간 구부려서 손끝을 가슴에 댄 후 엇갈리게 위아래로 움직인다.

(자문: 임규현 에바다부 담당 목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미국 · 이라크 전쟁 속히 끝내고 이라크에도 복음이 증거 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성수대교 영등대교

강남역 삼성역

가나리아트 포스코

강남경찰서 면허시험장

연희모성아파트

잠실, 백제교본로

영등서브란스 포도자거리 순마아파트

양재역 매통역 도곡역 대치역 락여울역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거리